

과기정통부, 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 실시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기관,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이통사 참여
- 파주 소재 국가에너지시설로 접근하는 복수의 전파혼신 상황에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GPS 전파혼신)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 전파를 송출하여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방해.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날 중앙전파관리소(지휘통제)와 파주지역(전파혼신 현장)에서 진행된 실제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의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기관과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KT 등 이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파주지역 2개 지점에서 동시간대에 전파혼신이 발생 이동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이 중 1개 혼신원은 국가중요 에너지시설에 접근·교란을 시도하여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 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4개의 혼신추적팀과 1개의 기동타격대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 조치와 더불어 민간 교통·통신 서비스 피해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조치도 시행하였다. 국토부는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고, 대체항법 및 지상항행 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통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고, 해수부는 해경과 협력한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 등을 강화하고, 레이더·지상파 등 대체항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통사는 네트워크 동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최근 국제사회 분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GPS 전파혼신 공격은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선박 운항과 전력·통신·금융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민·관·군 합동훈련을 통해 복합적인 전파혼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하고, 훈련간 발굴된 개선사항을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GPS 전파혼신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책임자
		담당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책임자
		담당자